

한문 문법에서의 보어 개념 재고

-한문과 학교문법과 관련하여-

김성중*

目 次

- I. 서론
- II. 보어에 대한 기존의 견해 및 논의점
 - 1. 한문과 교육과정의 서술
 - 2. 국내 학자의 연구 성과
 - 3. 중국 학자의 견해
- III. 보어 개념과 그 필요성에 대한 재고
 - 1. 보어의 정의
 - 2. 한문 문법 체계 서술 기준과 보어
 - 3. 보어 개념 상정의 필요성 재고
- IV.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그동안 학계에서 여러 이견이 있었던 보어 개념에 대해 문제점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일정한 방법과 기준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일반 언어학 관점으로 볼 때 보어라는 개념 자체가 정의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를 한문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한문 문법 서술 체계의 기준을 정하지 못함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노정되었다고 보여진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문에서 무엇을 보어로 볼 것이냐가 아닌 한문에 과연 보어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한문에서 소위 보어로 분석되어지는 언어 현상이 실제로 보어가 아닐 수 있으며 따라서 보어라는 용어를 상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소견을 제

시하였다. 학문 문법의 측면에서 보면 한문을 좀더 정치하게 분석하기 위해 동사 뒤의 명사성 성분 및 유관 언어 현상을 세밀히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학교 문법의 각도에서 보자면 실제 한문 독해력 신장과는 일정 정도 거리가 있는, 문법을 위한 문법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목적어와 보어를 하나로 통일하여 목적어라는 개념을 쓰는 방안, 혹은 또 다른 용어, 예컨대 ‘客語’를 상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간략하면서도 명확한 학교 문법 서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 제 어 한문문법, 춘추전국시대, 문장성분, 목적어, 보어

I. 서론

한문교육학계에서 문법 부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는 연구 논저 편수의 측면 뿐 만 아니라 연구 범위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논의가 집중되었던 것은 두 분야로, 하나는 교과서 간의 문법 설명의 차이를 조사하고 이를 통일하기 위한 안을 제시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특정 문법 사항에 대한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기실, 이 두 분야는 한문과 학교문법이 우리나라에서 독자적 체계를 갖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노정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언어 현상 분석에 있어 학자들 사이의 이견은 학문 발전의 또 다른 측면이라 할 수 있기에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러한 견해 차이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서술에 영향을 미쳐 학교 현장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측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목적어¹⁾와 보어 개념이었다.

1) 目的語와 賓語는 영어로는 모두 object이다. 이들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다

7차 교육과정(이하 7차)에서의 보어 개념은 국어의 보어 개념을 받아들인 것이었고 2007 개정 교육과정(이하 2007개정)은 중국 고대한어 어법 학계의 견해를 일정 정도 받아들였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비교적 오랜 기간 사용되었던 7차에 의해 집필된 교과서와는 다른 2007 개정의 문법 사항들을 혼란스러워 하였는데 특히 술보, 술빈 관계의 예문으로 제시된 下山과 登山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은 점에 곤혹스러워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2007개정의 빈어, 보어의 정의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보어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의 정론이 없다. 학문 문법에서 정론이 없는 것은 특이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고 또 언어 현상에 대한 묘사, 분석에 있어 학자들의 견해 차이는 학계의 발전에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어에 대한 각 견해들이 타당성을 확보함에 있어 문제점을 노정한다면 해당 사항들을 논의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처럼 여러 견해가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도 살펴 보아야 한다. 만일 ‘한문’²⁾의 묘사와 분석에 있어 보어라는 개념이 적절하지 않다면, 그리고 학교 문법에 적용할 때 실용적이지 못하다면 우리는 보어 개념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 보다는 이들 용어의 개념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범주가 달라진다고 파악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빈어가 우리말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말의 목적어보다 그 범위가 넓다는 점이다. ‘목적어’라는 용어 대신 ‘빈어’라는 용어를 사용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 것도 기실 같은 맥락이다. 본고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때마다 각 학자의 object에 대한 정의가 동일하지는 않기에 서술의 편의상 두 개념의 차이를 두지 않고 사용한다.

- 2) 춘추전국시기 문헌에 쓰인 한문을 ‘한문’으로 표기함으로써 구별하여 사용한다. ‘한문’의 언어학적 개념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II. 보어에 대한 기존의 견해 및 논의점

보어에 대한 한중 학자의 견해에 대해서는 기존의 논저들에서 적지 않게 언급한 바 있다. 본 장에서는 보어를 논의할 때 주로 언급되는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그것의 적합성, 구체적으로는 학교 문법 체계에서의 적합성 및 실용성을 검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보어라는 개념의 상정이 노정하는 문제도 아울러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1. 한문과 교육과정의 서술

교육과정의 문법 부문 서술은 학계의 연구 성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보여 주는 대표적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먼저 검토해야 할 대상이다. 7차와 2007개정에 대한 비교 분석은 기존의 논문들에서 다룬 바 있으므로³⁾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과 교육과정(이하 2009개정)⁴⁾을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2007개정과 비교하도록 한다.⁵⁾

2007개정: ‘서술어는 동작이나 행위 또는 존재나 소유를 나타내고, 빈어는 그 대상이 된다.’...‘서술어는 동작, 행위, 상태 등을 나타내고, 보어는 서술어를 보충하여 부족한 뜻을 완전하게 해준다.’

3) 대표적인 논문으로 정순영(2008)이 있다.

4) 2011년 8월에 고시된 한문과 교육과정의 정식 명칭이다.

5) 필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문과 교육과정 개발에 연구진으로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줄고를 집필하게 된 계기 및 아이디어 등은 여러 연구진 선생님들(윤재민 교수, 송병렬 교수, 장호성 박사, 김왕규 교수, 이군선 교수, 김경익 선생)에 힘입은 바 크다. 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줄고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연구진 선생님들의 합의된 결과는 교육과정 서술 내용을 근거로 해야 한다.

2009개정: 서술어는 동작이나 행위 또는 소유를 나타내고, 목적어는 그 대상이 된다. ... 서술어는 동작, 행위, 상태 등을 나타내고, 보어는 서술어를 보충하여 부족한 뜻을 완전하게 해 준다.

2009개정의 보어에 대한 정의는 2007개정과 같다. 2007개정에서 쓴 ‘빈어’라는 용어 대신 7차에서 썼던 ‘목적어’를 다시 택한 이유는 ‘빈어’가 학교 현장에서 생소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견해를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술빈관계’에 대해 2007개정과는 달리 2009개정에서는 ‘존재’를 삭제하였다. 목적어가 서술어의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 ‘대상’이란 객체[受事:patient, recipient]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 뒤의 성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피한 것은 2009개정의 핵심이 타동사의 목적어, 즉 서술어 뒤의 명사성 성분이 의미상 객체인 경우만을 목적으로 파악하고 자동사 등의 뒤에 오는 것은 보어로 파악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⁶⁾ 술목, 술보에 쓰인 서술어가 모두 동작, 행위를 나타낼 수 있지만 동사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술목관계와 술보관계로 달라지는 것이다. 이 견해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한문’에서 객체 목적어도 취하는 동사, 즉 타동사와 객체 목적어는 취하지 못하는 동사 즉 자동사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 한어 등에서는 비교적 명확한 이 둘의 구분이 ‘한문’에서는 분명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술목과 술보를 나누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예컨대, 2007개정에서 술빈구조의 예로 들은 ‘入學’에서의 ‘入’은 자동사로 분류되기도 한다.⁷⁾ 2007개정에 의해 집필된 교

6) 한문에서 타동사와 자동사의 구분 기준을 ‘목적어를 취하느냐의 여부’로 할 때, 목적어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교육과정에서는 객체목적어를 염두한 것이지만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

7) 李佐豐(2003), 29면.

과서에서 ‘眼境初入中國’, ‘左右扶入帳中’ 등을 술보구조로 파악한 것에서 알 수 있듯 교과서가 교육과정의 문법 서술을 따르지 않을 정도로 술목관계와 술보관계의 판단이 隨意的으로 될 여지가 크다. 하나의 예를 더 거론하면, 2007개정에서 술보관계로 파악하였던, ‘下山’에서의 ‘下’는 “天油然作雲, 沛然下雨(『맹자』)”, “(伯州犁)下其手曰:此子爲穿封戌…(『좌전』)”에서 보듯이 객체목적어도 취하므로 타동사로 분류할 수도 있다. 결국 동사의 성질로 목적어와 보어를 나누는 것은 학교 문법예의 적용에 있어 일정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둘째, ‘한문’ 문법 서술 체계에 있어 모순이 발생한다.⁸⁾ ‘한문’에서는 목적어가 다음 세 가지 조건에서 동사⁹⁾ 앞으로 도치(혹은 전치)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첫째, 의문대명사가 목적어일 때 반드시 도치한다. 둘째, 부정문에서 대명사가 목적어일 때 일반적으로 도치한다. 셋째, 조사 ‘是/之’ 등의 표기를 이용하여 도치한다.¹⁰⁾ 여기서 말하는 도치는, 어기의 강조나 대구 등의 수사적 표현 때문에 일어나는 도치가 아닌, 일정한 문법적 조건에 의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어순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朝者曰, “公焉在?” 其人曰, “吾公在壑谷.”(『左傳·襄公』)

朝見하기 위해 온 가신들이 말하기를 “공은 어디에 계시는가?”고 묻자, 그 시종이 말하기를 “우리 공께서는 학곡에 계십니다.”라고 하였다.

8) 이 부분은 원광대학교 이군선 교수가 연구진 회의에서 제기한 것으로, 줄고를 작성함에 크게 힘입었다. 물론, 줄고의 서술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9) 동사 외에 개사도 포함하지만, 서술의 편의를 위해 동사만 거론한다.

10)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는데, ‘是/之’를 複指대명사로 보는 것이다.

‘在’는 일반적으로 객체목적어를 취하지 않기에 타동사가 아니므로 ‘在+명사성 성분’인 ‘在壑谷’은 술보구조로 파악해야 한다. 그렇다면 ‘公焉在’는 의문대명사가 보어일 때 도치된 것으로 분석해야 하고 이럴 경우 목적어 도치 외에 ‘보어 도치’라는 새로운 문법 사항을 상정해야 한다.¹¹⁾ ‘목적어 도치’와 모순되는, 이러한 문제점은 2009개정 뿐 아니라 2007개정에서도 동일하게 노정된다.¹²⁾

첫 번째 문제점이 ‘한문’의 언어적 현실에서 유발된 것이라면 두 번째 문제점은 문법 서술 체계의 측면에서 나온 것이다. 문법 서술은 언어 현상을 묘사 분석하는데 적합해야 하고 또 문법 체계 내에서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교육과정의 서술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국내 학자의 연구 성과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논문은 세 편으로 송병렬(1996), 정만호(2004), 정순영(2008)이다. 송병렬 교수는 ‘번역문이 아닌 한문의 체계에서 한문을 분석하자’ ‘학생과 교사에게 한문을 쉽게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인 학교 문법의 목적에 의거하여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등을 근거로 하여 서술어 뒤의 명사성 성분(명사구, 명사류라고도 하며, 흔히 NP[noun phrase]로 축약한다)을 모두 ‘명사어’라 부르자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목적어와 보어를 아우르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이가원(1987)에서도 보인다.¹³⁾ 정순영(2008)이 상기 논문에 대해 단편적이며

11) 필자는 한문에서 ‘보어 도치’ 개념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논저를 아직 찾지 못했다.

12) 2007개정에서는 술목관계의 서술에서 ‘동작’ ‘행위’ ‘소유’ 외에 ‘존재’가 추가되어 있지만 ‘牛何之’ (『孟子』)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춘추전국시기 문헌에서 도치되는 ‘목적어’ 범주는 대단히 광범위하다.

이론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는데 후술하겠지만 필자는 기본적으로 상기 논문의 결론에 동의한다.

정만호(2004)는 동사의 성격, 즉 타동사나 자동사나를 가지고 빈어와 보어를 구분할 수 없고, 개사의 유무라는 형태적 기준을 통해서도 구분할 수 없다는 등의 견해를 밝혔다. 기존의 일부 논의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론적인 기준인 형식과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빈어, 보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후속 연구(2006)에서는 중국 고한어 어법 학계의 주류적 견해인 양백준·하락사(2001)의 분류 방법¹⁴⁾을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을 언급하였다.

정순영(2008)은 특히 2007개정의 빈어, 보어 개념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거론하고 중국 학계의 연구성과까지 참고하여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는데 술빈관계를 ‘서술어는 동작이나 행위(인식, 비교, 칭위, 사유)를 나타내고, 빈어는 그 대상이 된다.’로, 술보관계를 ‘서술어는 상태나 동일관계를 나타내고, 보어는 주어의 상태 또는 존재, 소유나 동일관계의 의미를 보충하여 준다.’로 정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논의의 핵심은 지배관계로, 존재, 연계 등을 나타내는 서술어와 그 뒤의 명사성 성분은 지배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지배관계의 정의 및 지배관계의 판정, 그리고 이를 학교 문법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더 필요하다. 문제는 설령 지배관계에 있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보어로 볼 수 있는가에 있다. 상기 논문에서 근거로 삼은 黃六平(1981)에서는 상기한 명사성 성분을

13) 이가원 선생은 客語라는 용어를 썼다. 명사어가 NP의 품사적 특성에 중심을 둔 것이라면, 객어는 서술어와의 관계성에 중심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14)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보어로 처리하지 않고 表語로 처리하였다. 황육평은 선진시대에서의 보어의 개념을 부정하고 문장성분에도 넣지 않는다.¹⁵⁾ 따라서 황육평의 견해와 달리, 동일한 언어 현상을 표어가 아닌 보어로 파악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중국 학자의 견해

양백준·하락사(2001)로 대표되는 중국 고한어 어법계의 주류는 동사와 직접 연결되는 명사성 성분은 모두 빈어로 파악하고 보어는 들로 나누는데 동사 뒤에 있는 동사(혹은 형용사) 그리고 ‘개사+명사성 성분’이다. 그런데 춘추전국시기의 문헌에서는 ‘동사+형용사’ 구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¹⁶⁾ 또한 춘추전국시기의 문헌의 경우 ‘동사+동사’구조는 연동문 혹은 병렬구조로 볼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 따라서 춘추전국시기로 한할 경우 양백준·하락사(2001)의 주장에서 술보관계로 남는 것은 ‘개사+명사성 성분’ 뿐이다. 그러나 단어가 말지 않는 문장성분을 ‘구절[phrase]’을 가지고 상정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張雙棣 외(2002)¹⁷⁾는 고한어에서 명사성 성분이 보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V+NP’가 술빈관계일 때는 지배관계, 술보관계일 때는 보충관계로 파악하여 술빈과 술보를 구분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을 때 따르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추가하는데 ‘두 개의 빈어를 취하는 쌍빈어 동사는 보어를 거느릴 수 없다’, ‘처소빈어를

15)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정순영(2008)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16) ‘동사+형용사’ 구조에서 형용사가 결과보어가 되는 셈인데 이러한 언어 현상은 西漢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17) 이 책의 어법 부분은 어법 분야 전문가인 북경대 송소년 교수가 집필하였다.

데려올 수 있는 동사는 보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가 아니다.¹⁸⁾ 등이다. 전자는 직접 빈어, 간접 빈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후자는 빈어 도치(예를 들어, ‘沛公安在’『사기』)를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 견해는 ‘지배 이론[Government Theory]’의 고한어 어법 적용에 대한 명확한 서술을 하지 않았고 상기한 두 조건의 어법적 타당성을 밝히지 않았다. 기실, 이 주장이 나오게 된 기저에는 명사가 개사의 도움 없이 서술어 앞에서 부사어로 쓰이듯 개사 도움 없이 보어로 쓰일 수 있으며 ‘명사성 성분의 보어 담당’을 상정하지 않으면 현대한어에 비해 대단히 복잡한 고대 한어의 ‘동사+명사성 성분’의 의미관계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생각이 있다.¹⁹⁾ 이 견해를 학교 문법에 적용할 때 ‘빈어 도치’를 설명하려면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처소빈어를 데려올 수 있는 동사는 보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가 아니다.’는 조건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예외 조항의 어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동사의 여러 종류 가운데 이것만 상정하는 것은 작위적인 측면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 보어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고 각 주장에는 일정 정도의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보어란 무엇인가? 한문에 과연 보어가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많은 논의들은 이미 보어라는 것으로 분석해야할 언어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정한 뒤에 무엇을 보어에 넣느냐, 목적어와 보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고민을 했다고 할 수 있다.

18) 張雙棣 외(2002), 300면.

19) 같은 책, 300~301면.

Ⅲ. 보어 개념과 그 필요성에 대한 재고

1. 보어의 정의

‘서술어를 보충한다’는 보어에 대한 정의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또 모호하다.²⁰⁾ 한문도, 비록 사어라고 하지만 국어, 영어와 같은 언어이다. 따라서 한문 문법을 서술할 때, 일반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 일반 언어학적으로 이론이 분분하거나 통용되기 어려운 개념, 규정 등은 한문에 적용될 여지도 그만큼 없기 때문이다. 아래는 『언어학사전』에 있는 보어의 정의이다.

소위 전통문법에 있어서 대략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 용어이다. 1) 동사와 함께 문장의 술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소위 보어 외에 직접 목적어 및 부사까지 포함하는 경우. 2) 위의 1에서 직접 목적어를 제외한 나머지 것으로서, 동사를 수식하는 것 전체를 포함하는 경우. 3) 동사에 불가결한 요소, 예를 들면, he put his affairs in order 에서의 in order와 같이, 그것이 없으면 동사의 의미가 불완전해진다고 생각되는 것. 4) he is a fool 과 he grew wiser 에서의 a fool/wiser 와 같이 연계사(copula)와 함께 나타나면서 주어의 서술을 완전하게 하는 명사, 형용사 등 소위 주격보어라 불리는 것(svc구문의 c에 해당)과, they elected him president 의 president 처럼, 목적보어(svoc구문에서 c에 해당하는 것)를 가리키는 경우 등. 이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4)라고 말할 수 있다.²¹⁾

20) 포괄적 의미로 정의를 내릴 경우, 이론은 그만큼 없겠지만, 그 가치가 퇴색되어, 자칫 정의의 의미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 협의의 정의처럼 제한을 둘 경우는 모순되어서도 안되고 언어 현상과도 맞아야 하는 등의 고도의 엄밀성이 요구된다. 이는 정의를 내릴 때 흔히 맞닥뜨리는 일반적인 문제이다. 광의의 정의를 내릴 때에도 그 이면에는 협의의 정의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21) 이정민 외(2000), 153면.

위에서 알 수 있듯, 보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크다. 학문 문법에 있어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 특이한 것은 아니지만, 보어에 대한 상기 정의들을 살펴 보면 어떻게 정의를 내려도 일정 정도 타당성이 있고 또 어떻게 정의를 내려도 다 적합하지 않는 상황을 유발할 것 같다. 일반 언어학에서의 이러한 여러 정의를 통해 볼 때 앞서 한문에서 보어에 대해서 그토록 다른 견해들이 나온 것이 어찌면 당연하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한문에서의 보어는 이 많은 정의 중에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가? 아니면 한문에 맞는 새로운 정의를 찾아야 하는가? 혹은 한문에는 이에 적합한 것이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에 앞서 현대한어와 국어에서의 보어에 대한 서술을 참고해 보자.²²⁾

현대한어: 빈어는 명사적 성분일 수도 있고, 동사적 성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보어는 동사적 성분일 뿐, 명사적 성분일 수는 없다. 의미상으로 보면, 빈어는 동작과 관계있는 사물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며, 보어는 동작의 결과 혹은 상태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²³⁾

국어: 보어도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성분이다. ‘되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를 제외한 것만을 보어로 인정한다.²⁴⁾

상기한 현대한어의 빈어 보어에 대한 정의는 앞서 언급한 양백준·하

22) 현대한어학계, 국어학계의 연구 성과를 망라해서 보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정리 분석하는 것은 본고와 일정한 거리가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논저의 서술을 거론하여 참고할 뿐이다.

23) 주덕희 저, 허성도 역(1997), 261면.

24) 교육과학기술부(2002/2011), 『고등학교 문법』, 152면.

락사(2001)의 견해와 대동소이한데 한어 나뭇의 보어의 규정을 세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어의 경우는 보어의 정의 중 가장 일반적이라고 하는 4)번과 관계가 깊다. 그러면 한문에서는 이 두 정의 가운데 어떤 하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에 답을 하려면 우리는 먼저 한문에서 문법 체계의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를 논의해야 한다.

2. 한문 문법 체계 서술 기준과 보어

한문 문법 체계 서술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선 우선 한문에 대해 정의를 내려야 하는데, 이것 또한 결코 녹록치 않다. 일반적으로 ‘春秋戰國시기의 구어를 기초로 형성된 문언문’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후대에 이러한 문언문으로 쓰여진 것도 포함된다. 이 정의는 시대와 지역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인데, 이 정의에 의거하면, 춘추시대의 구어라 할 수 있는 『논어』도 한문이고, 현대 한국에서 문언문으로 쓰여진 祭文도 한문이다.²⁵⁾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는 춘추전국시대 이후에 한문으로 쓰여진 텍스트들의 문법 체계가 춘추전국시대의 그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²⁶⁾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주요한 두 가지는 구어의 변화가 문언문에 간섭이 되었던 것, 그리고 언어 접촉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간섭과 언어 접촉은 각 시대 및 지역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결국, 한문은 이러한 많은 차이가 혼재되어 있는 ‘總體’인 셈이다. 그렇다면, 한문에 존재하는 문법적 차이 중 어디까지 한문 문법 체계 안에 포섭해야 하는가가 관건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25) 시대에 하한선을 두어, 중국의 경우에는 ‘五四’이전, 한국의 경우에는 조선시대이전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점이 본고의 논의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26) 본고에서는 문장성분을 다루므로 어휘와 음운의 차이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다.

我是朝鮮人, 甘作朝鮮詩

다산 정약용의 유명한 ‘조선시 선언’이다. 이 예문에서의 ‘是’는 판단문의 判斷詞(즉, 繫詞)로 쓰였다. ‘總體’로서의 한문에서는 ‘是’가 판단사로 쓰일 수는 있지만, 춘추전국시대 문헌에는 판단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²⁷⁾ 따라서 ‘是’도 판단사로 쓰이지 않았다.²⁸⁾ 漢代 문헌에 ‘此必是豫讓也’(『史記』) 같은 예가 있지만 그 수는 여전히 많지 않다. 우리는 춘추전국시대에 판단사가 생략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후대 언어 현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역사를 거슬러 앞 시대의 언어 현상을 분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판단사를 쓰지 않는 것으로 춘추전국시대 언어의 특징을 말하고 춘추전국시기에 판단문의 형식을 살펴야 한다.²⁹⁾

판단문은 주요 文型가운데 하나로 문법 서술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한문과 학교 문법 문형 부문에서 판단문을 서술할 때, 판단사를 쓰는 형식의 판단문, ‘此必是豫讓也’ ‘我是朝鮮人’을 거론해야 하는가? 필자는 거론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³⁰⁾ 한문이 ‘총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학교 문법의 서술 체계는 그 ‘총체’에 존재하는 모든 문법 현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춘추전국시기의 문법 현상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에

27) 乃, 爲 등을 판단사로 보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나 논거가 빈약하다. 판단문에 등장하는 것과 판단사는 구분해야 한다.

28) 논쟁이 되는 극소수 예외가 있지만, 본고의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孤證’이기 때문이다.

29) 춘추전국 시기 판단문의 형식은 ‘주어(+者)+술어(+也)’로 간략히 나타낼 수 있다. ‘()’는 없을 수도 있다는 표시이다.

30)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학교 문법의 서술과 개별 문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법 사항 설명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 문법의 서술에서 판단사는 거론하지 않더라도 ‘我是朝鮮人’을 가르칠 때는, ‘是’를 판단사로 설명해야 한다.

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를 통해 볼 때 앞서 현대한어에서 택했던 보어 개념도 국어에서 택한 일반적인 보어에 대한 정의도 ‘한문’에는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한문’에서는 보어로 상정할 수 있는 동사성 성분이 서술어 뒤에 오지 않고 또 판단사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3. 보어 개념 상정의 필요성 재고

개념 정의도 어렵고 어떠한 정의를 택하더라도 적합하지 않은 ‘한문’에서의 보어를 학계에서 애써 상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거론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는 언어 내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 외적인 측면이다. 언어 내적인 측면이란, 보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묘사하기 어려운 언어 현상이 존재하고 또 보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좀더 정치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 외적인 측면이란 현대한어와 ‘한문’을 연계시키려는, 좀더 정확히 말하면 현대한어에 특징적인 면모인 보어의 존재에 대해 한어사적 계보를 찾으려는 의도이다.

우선 후자에 대해서 논하자면, 필자는 ‘한문’과 현대 한어가 일정한 연관이 있지만 서로 다른 언어 체계라고 파악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대 한어에 있는 언어 현상이 ‘한문’에도 있다고 상정하고 그에 맞추어 분석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문법 분석의 근거는 언어 자료이고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할 것도 역시 언어 자료이다. 현대 한어의 특징을 시대를 거슬러 ‘한문’에 끼워 맞추려는 것은 영어, 국어의 특징을 ‘한문’에 끼워 맞추려는 것과 크게 다르다 할 수 없다. 양백준·하락사(2001)도 현대 한어와 대동소이한 개념으로 보어를

사용했지만 ‘한문’에는 현대한어의 보어의 가장 큰 특징인 동사성 보어는 없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른바 ‘개사+빈어’구조가 담당하는 보어만 남게 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어는 담당하지 않고 구절[phrase]이 맡게 되는 문장 성분을 학교 문법 체계에 상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동사 뒤의 개빈 구조 처리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동사와 동사 뒤의 명사성 성분간의 복잡한 의미 관계의 구분 필요성이다. 우리나라의 한문과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중국 고한어 어법 학계의 주류는 ‘개사+명사성 성분’이 서술어 앞에 오면 부사어, 서술어 뒤에 오면 보어로 파악한다. 2007개정 해설서의 예문을 보자.

- ① 王, 待吾以國士. [왕이 나를 국사로 대우하다.] (‘以國士’가 보어)
 ② 王, 以國士待吾. [왕이 국사로 나를 대우하다.] (‘以國士’가 부사어)

교육과정에서 언급하였듯이 주어, 서술어, 빈어(혹은 목적어), 보어를 주성분이라고 하고 주성분에 덧붙여 이를 수식하는 성분을 부속성분이라 하며 관형어와 부사어가 이에 속한다. 우리가 주성분과 부속성분을 나누는 이유는 주성분이 문장을 이루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여서 만일 해당 문형에서 이들 요소가 빠지게 되면 문장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부속성분은 주성분처럼 중요한 몫을 하지 않는다. ①에서는 ‘以國士’가 보어이니 이 요소가 빠지면 문장이 성립이 되지 않아야 하고 ②에서는 ‘以國士’가 부사어이니 이것이 빠져도 문장이 성립되어야 한다. 결국 ‘以國士’가 빠지면 똑같은 ‘王待吾’인데 어떤 것은 문장이 성립되고 어떤 것은 문장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 분석인가 의문이다. 『맹자』에 나오는 두 예문 ‘易之以羊’과 ‘以羊易之’에 대해 학계가 인정할 수 있는 차이를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을 통해 볼 때에도 동사 앞 뒤의 ‘개사+명사성 성분’에 대해 부사어와 보어로 문장 성분을 나누어 문법적 차이를 두는 것은 현재까지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³¹⁾

개빈 구조 중 ‘於+명사성 성분’구조는 춘추전국시기 문헌에서 주로 서술어 뒤에 위치하였다.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서술어+於+명사성 성분’과 ‘서술어+명사성 성분’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 않다. 여타의 개빈 구조와 마찬가지로 보어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우상(1990)에서 부사어로 파악하는 黎錦熙의 견해를 소개한 바 있고 일본학자 太田辰夫(1960)는, ‘於/于’ ‘乎’를 특수 개사로 처리하여, 이들 개사 뒤에 오는 명사성 성분을 개사의 목적어로 처리하지 않고 동사의 목적어로 처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하락사(2006)의 다음 서술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

‘於’의 빈어는 실제로는 술어 동사의 객체빈어이지만, 일정한 문맥에서, 빈어에 대한 강조 혹은 기타 원인 때문에 ‘於’를 사용하여 객체빈어를 이끌어 내어서는 술보구조로 변환되게 된다. 이러한 문장에서 ‘於’는 주로 여기를 강조하는 작용을 한다.³²⁾

하락사(2004)는 ‘빈어에 대한 강조’ 혹은 ‘기타 원인’에 대해 실제 예

31) 최근에 문법을 분석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대두되는 화용론을 고려한다면 다른 분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학문 문법에서도 일반화되지 않은 화용론적 접근을 학교 문법에 끌어 온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물론 화용론적 접근을 취한다 해도 그것이 곧 보어 상정의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32) 하락사(2006), 546면.

를 들어 설명하였다.

衛侯始惡於公叔戌，以其富也(『左傳·定公』13년)는 피동문이 아니다. 이 예문에서 '於'를 사용하여 빈어를 이끌어 들인 데는 작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부사 '始'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始'가 있으니 '終'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衛侯는 公叔戌을 미워했기 때문에 다음해 봄에 그를 쫓아낸다.³³⁾

'於+명사성 성분'을 보어로 파악하는 것은 명사성 성분이 '於'의 빈어라고 파악하기 때문인데 상기한 분석에서 보듯 실제로는 명사성 성분이 동사의 빈어일 수 있고 '於'는 특정 어기를 강조하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보어라는 개념은 학문 문법에서 정의하기도 어렵고 분석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처럼 난해한(?) 보어를 학교 문법에 상정할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보어가 한문 독해력 신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아마도 동사와 동사 뒤의 명사성 성분 간의 복잡한 의미 관계의 구분 필요성이 이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張雙棣 외(2002)에서는 고대한어에서의 보어 개념의 필요성에 대해서 복잡한 술빈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거론한다. 즉, 현대 한어에서 동사 뒤의 명사성 성분은 일반적으로 모두 빈어로 보고 보어로 분석하지 않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동사와 그 뒤 명사간의 의미 관계가 현대 한어보다 더욱 복잡한 고대한어의 경우, 이를 술빈, 술보로 나누지 않고 모두 술빈관계로 파악하면 술빈관계에서의 의미관계를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

33) 하락사(2004), 103~104면 참조.

다.³⁴⁾ 그러나 한문에서 동사와 동사 뒤의 명사성 성분과의 의미관계가 이처럼 복잡하더라도 이것이 학교 문법에서 보어 상정의 충분한 이유가 될 수는 없을 듯하다. 분류를 하는 것은 분명하게 구분지어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인데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킨다면 그 분류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분류로 인한 혼란을 포괄적인 서술 방식으로 해결한 것을 우리는 주어 개념을 통해서 볼 수 있다.

7차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주술관계에 대해 “서술어는 행위, 동작, 상태 등을 나타내고, 주어는 그 주체가 된다. ‘~가 ~함’, ‘~이 ~함’의 관계”, 주술 구조는 “주어는 행동 주체를, 서술어는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이(가) ~하다’, ‘~이(가) ~이다’로 풀이”라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한문에서는 이 정의와 맞지 않는 주어가 대단히 많다.

善不可失, 惡不可長. (『左傳·隱公』)

事有利害, 物有生死. (『韓非子·觀行』)

밑줄 친 ‘善’‘惡’, ‘事’‘物’ 등은 주어가 아닌 다른 문장 성분으로 분석될 수 없는 것들이지만 모두 행동의 주체는 아니다.³⁵⁾ 그렇다면, 동사 앞의 명사성 성분에 대해 행위의 주체자인 주어와 다른, 별도의 문장 성분(예컨대, 주제)을 상정해서 분류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2007개정에서는 동사 앞의 명사성 성분을 분류하지 않고 주어에 대해 포괄적 정의를 택하는 방법을 취해 “서술어는 주어에 대해 진술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주어는 서술어의 진술을 받는 대상이 된다”로 서술을 바꾸었다.

34) 술빈관계에서 동사와 빈어와의 다양한 의미관계는 양백준·하락사(2001), 547~548면 참조. 양백준·하락사는 5개의 대부류와 20개의 소부류로 나누었다.

35) 동사 앞 NP와 동사와의 의미관계로 볼 때 첫 번째 예는 객체이고 두 번째 예는 주제이다.

동사와 동사 뒤의 명사성 성분의 다양한 의미관계의 파악을 위해 동사 뒤의 NP를 목적어와 보어로 나누어야 한다면 똑같은 이유로 동사 앞의 NP도 나누어야 하지만 2007개정에서 7차 교육과정의 주술관계에 대한 서술을 수정하면서 주어에 대한 포괄적 혹은 광의의 정의를 택한 것은 분류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된다.³⁶⁾ 소견으로는 동사 뒤의 명사성 성분에 대해서도 주어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내려 혼란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V. 결론

본고는 그동안 학계에서 여러 이견이 있었던 보어에 대해 논의의 문제점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일정한 방법과 기준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학문 문법에서 한문을 좀더 정치하게 분석하기 위해 동사 뒤의 명사성 성분 및 유관 언어 현상을 세밀히 나누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학교 문법의 각도에서 보자면 실제 한문 독해력 신장과는 일정 정도 거리가 있는, 문법을 위한 문법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더욱이 보어라는 개념이 일반 언어학 측면에서 볼 때 명확히 정의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한문 문법 체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춘추전국시기의 언어 현상을 분석하는데 큰 효용성이 없다면 우리는 이 보어라는 개념을 한문과 학교 문법 서술에 계속 제시해야 하는 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목적어와 보어를 하나로 통일하여 목적어라는 개념을 쓰는 방안, 혹은 또 다른 용어, 예컨대 ‘客語’를 상정

36) 2007개정 및 2009개정에서, 광의의 정의를 택한 주어와 달리 목적어(혹은 빈어)에 대해서는 狹義의 정의를 택한 셈이니 서술 체계의 일관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방안 등을 통해 간략하면서도 명확한 학교 문법 서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參考文獻

- 교육과학기술부(2002/2011), 『고등학교 문법』, 두산동아.
- 교육과학기술부(2008)『중학교 교육과정 해설(V)』;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⑬-한문』.
- 교육과학기술부(201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한문』.
- 송병렬(1996), 「教科書 漢文 文法에 대한 再考」, 『한문교육연구』10, 한국한문교육학회.
- 이정민 외(2000), 『언어학사전(3판)』, 박영사.
- 이가원(1987) 李家源(1987), 『漢文新講』, 신구문화사.
- 정만호(2004), 「빈어와 보어의 구분에 관한 소고」, 『한문교육연구』23, 한국한문교육학회.
- 정만호(2006), 「한문의 문장성분 분류」, 『한자한문교육』16,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 정순영(2008), 「중학교 한문과 “한문지식영역”에서 한문문법의 문제」, 『한문교육연구』 30, 한국한문교육학회.
- 정우상(1990), 「한문의 構文構造 연구」, 『한문교육연구』4, 한국한문교육학회.
- 楊伯峻·何樂士(2001), 『古漢語語法及其發展』(수정본), 語文出版社.
- 殷國光(2008), 「呂氏春秋述賓結構的考察」, 『語言論集』第5輯,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李佐豐(2003), 『先秦漢語實詞』, 北京廣播學院出版社.
- 張雙棣 等 編著(2002), 『古代漢語知識教程』, 북경대학출판사.
- 주덕희 저, 허성도 역(1997), 『현대중국어어법론』, 사람과 책.
- 太田辰夫(1960), 「論語文法研究」, 『神戸外大論叢』11卷 第2號
- 何樂士(1989/2004), 『左傳虛詞研究』(수정본), 商務印書館
- 何樂士(2006), 『古代漢語虛詞詞典』, 語文出版社.
- 黃六平 著, 洪淳孝·韓學重 譯(1981/1994), 『漢文文法綱要』, 미리내.

■ 中文摘要

關於漢文科語法教學中“補語”概念的商榷

金聖中*

本文以賓語與補語作為討論中心，為漢文科的教學語法的敘述原則提出了一些意見和建議。本文認為漢文科的教學語法應在遵守普遍教學語法的敘述原則的基礎上注重漢文科的固有特性。

漢文科的教學語法體系應以先秦時期，尤其是周秦時期的文獻作為語言材料。處於周秦之交的上古漢語，述謂中心詞在不借助介詞等虛詞的情況下直接帶“補語”的現象本身就不發達。故本文認為：既然漢文科教學語法以該時期的文獻作為語法陳述的核心對象，其中介入補語概念並不十分妥當。並且，對於不具有形式上區別的位於動詞后的名詞性成分與動詞成分之間，給予過細的意義關係上的解釋進行過硬的區分，很可能增加教師與學生在理解上的難度與混亂。

對於“補語”概念，不管在各種不同語言中，還是在同一語言中，學者之間說法不一。漢文科教學中的“補語”概念在漢文閱讀與理解方面並不屬於核心因素。從教學實效與效率的角度來看，我們需要考慮在漢文科語法教學系統中不妨除去“補語”概念。

關鍵詞

漢文文法，春秋戰國時代，文章成分，目的語，補語

* 新葛中學校 教師 / E-mail: zhung1227@hanmail.net

Abstract

Proposal for the Withdrawal of Conception of Complement in Classical Chinese

Kim, Sung-joong*

This Essay is to discuss about the form of description of the school grammar in Classical Chinese. The school grammar of Classical Chinese should not overlook its own distinguish marks while we follow the form of description of school grammar in general. The system of school grammar in Classical Chinese should take the texts of pre-Qin Dynasty, especially the texts of Zhou-Qin Dynasty as the main text materials. During Zhou-Qin Dynasty, the form of a predicate verb taking a complement directly without the help of function words like prepositions has not been developed yet. And in this circumstances,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present the concept of the completion. Besides, there is possible of a teacher and a student to increase confusion and difficulty in dividing an object and a complement if we excessively try to classify connexions of meaning to constituents of nouns located in verbs which have no formal differences at all. Because the concept of a completion is still different from scholars to scholars, from languages to languages, and its function is not so significant in the grammar of Classical Chinese, therefore We suggest that we need to consider withdrawal of the concept of complement in Classical Chinese grammar.

* Shingal-middle school / E-mail: zhung1227@hanmail.net

Key Words Classical Chinese grammar, Pre-Qin Dynasty, predicate verb, object, completion.

논문투고일 2012년 04월 13일

논문심사일 2012년 05월 01일

심사완료일 2012년 05월 13일